

지역정보화의 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권혁남*

목	차
1. 머릿말	다. 정보이용 실태와 만족도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라. 정보화사회 인식도
3. 연구결과 및 논의	마. 지역정보화에 대한 의견 및 전망
가. 표본의 특성	4. 맺는말
나. 지역생활 만족도	

1. 머릿말

이제 정보화사회는 우리 인류의 숙명처럼 거대한 물결이 되어 우리 곁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농경사회가 이미 어제의 사회이고 산업사회가 오늘의 사회라면 정보화사회는 그리 멀지않은 내일의 사회이다. 우리는 좋은 삶든간에 선택의 여지없이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가오는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사회발전전략 마련에 혈안이 되어 있다. 선진국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국가의 부(富)를 영속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만회해 보기 위해 전사회분야의 정보화에 국운을 걸고 있을 정도이다.

분명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사회는 현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장미빛 세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는 현산업사회가 안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고 있는 당면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잣빛 사회가 될 수도 있다. 현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중 그것이 정보화사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 중 하나가 지역간 불균형(불평등) 성장의 문제이다. 현 산업사회에서는 물질이나 에너지, 자본을 둘러싼 불평등 현상이 주된 관심대상이라면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나 지식이 부와 힘의 원천이 됨에 따라 이들을 둘러싼 불평등 현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서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정보의 균형 또는 불균형 문제로 귀착된다.

정보화사회에서의 지역간 불균형 성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 운동을 통해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지역정보화 개념은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각 지역간의 균등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하나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정보화란 고도 정보화의 선행적 시책으로 지역간 균등한 정보접근성 보장,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뉴미디어 보급의 촉진 등을 통해서 지방경제의 활성화, 지방주민의 생활의 질 고양, 지방문화의 육성 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주성(定住性)을 제고하고 지역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개념이다.¹⁾

지역정보화는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로 지역정보화는 경영정보화(MIS)와 같은 조직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나 산업정보화, 행정정보화 등과 같은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와는 달리 본질적으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라는 점이다.²⁾ 다시 말해 지역정보화는 특정 조직의 경계를 뛰어넘고 특정의 기능에 한정하지 않는 지역사회 전체를 단위로 하여 복합적 기능을 추구하는 정보화인 것이다. 둘째로 지역정보화는 지역간 정보격차의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정보화 정책을 입안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의 중요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³⁾ 그것은 첫째 누가 추진해야 하느냐

1) 체신부, 한국의 통신, 1988, 476쪽.

2) 조영호, 경기 및 인천지역 정보사회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 증장기 계획연구, 1991, 7-9쪽.

3) 앞의 논문, 19-26쪽.

나는 추진주체의 문제이며, 둘째 어떠한 단계를 밟아야 하느냐는 추진단계의 문제이며, 셋째로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가의 지역특성 고려방안이며, 넷째 통신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네트워크화 방안문제이고, 다섯째 뉴미디어를 지역정보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뉴미디어 활용방안문제이며,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화를 뒷받침해 줄 지원체계의 구축문제인 지원체계구축방안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소수의 관련 학자나 연구단체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직 구체화된 지역정보화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다가오는 정보화사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지역정보화의 방향 및 전략을 검토해 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서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지역간 불균형 성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정보화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정보화 정책수립은 위에서만 일방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의 수혜자요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만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의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북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의견이나 기대 등을 실증조사를 통해 파악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연구문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구체적인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 ①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지역생활의 불만요인은 무엇인가?
- ②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 ③ 정보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가?

④ 지역정보화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무엇을 기대하는가 ?

⑤ 지역정보화의 방향 및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실증조사를 병행하였는데 연구문제 1에서 4까지는 전북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해답을 구하고 연구문제 5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문헌을 기초로 하여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실증조사에 있어서 본 연구는 아직 정보화사회와 지역정보화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응답자로 선정하는 의도적 표본추출방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약 100명의 조사원으로 하여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중 여론지도층 인사로 분류할 수 있거나 또는 본 연구문제와 관련된 지식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2-3명 선정하여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토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1991년 11월 25일 - 28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총 215명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는데 본 조사의 표본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론지도층 또는 유식자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가. 표본의 특성

1) 성·연령별 분포

본 조사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66.0%, 여성이 34.0%로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분포하고 있으나 30, 40대 연령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각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7.7%, 30대가 47.0%, 40대가 20.0%, 그리고 50대 이상이 15.3%로 응답자의 약 반수가 30대이며 약 3명 중 2명이 30, 40대 연령층이다. 한편 성별에 따른 연령분포를 보면 남녀

모두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60.3%가 30대 연령층이며, 전체 여성 응답자의 83.6%가 30대 이하의 연령층이었다.

따라서 본 조사 응답자들은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30, 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더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교육수준

예상대로 응답자들은 고학력자들이었는데 47.4%가 대졸(재학, 중퇴 포함)이며, 27.4%는 대학원학력자들(재학, 중퇴 포함)이고 고졸이하는 25.1%에 불과하여 전체 응답자의 74.9%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다. 교육수준을 성별로 보면 대학 이상의 학력자 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학원 학력자의 비율에서는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36.6%, 여성은 9.6%가 대학원 학력자이다 (표 1 참조).

<표 1> 성별 교육수준 (%)

	남	여	전 체
고졸이하	23.2	28.8	25.1
대졸(재학, 중퇴)	40.1	61.6	47.4
대학원졸(재학, 중퇴)	36.6	9.6	27.4
계 (사례수)	100.0 (142)	100.0 (73)	100.0 (215)

3) 직업 및 가구소득

응답자들의 직업은 매우 다양했는데 다양한 직업들을 크게 6개의 직업군으로 재분류시킨 결과 「공무원·교사」가 22.4%로 가장 많고, 「자영업·서비스업」 종사자가 19.2%, 교수, 의사, 언론인, 법조인, 회계사, 시의원 등의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각각 15.0%이었다. 그리고 18.2%가 주부이고, 학생, 농업 등 기타

직업자가 10.3%이다.

본 조사 응답자들의 가구소득은 월 평균 115.6만원으로 고소득자들이었는데 70만원 미만 소득가구가 18.9%, 70-100만원대가 22.4%, 100-150만원대가 34.2%, 150만원 이상 소득가구는 24.5%이었다.

4) 출신지 및 거주기간

응답자들의 대다수인 86.0%가 전라북도 출신자들이며, 14.0%만이 타시도 출신자이다. 그런데 타시도 출신자의 약 반수인 44.8%가 주부들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응답자들의 전북지역 거주기간은 평균 29.4년인데 10년 미만 거주자가 10.8%, 10-19년 거주가 8.0%, 20-29년 거주가 24.4%, 30-39년 거주가 31.5%, 4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25.4%이다. 한편 응답자들의 86.9%가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12.1%가 전북내의 다른 시지역에, 0.9%가 전북내의 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나. 지역생활 만족도

1) 거주지역 만족도

시, 군단위의 현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7.9%가 매우 만족, 42.8%가 만족하는 편이라고 하여 과반수인 50.7%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셈이다. 보통이라는 34.4%, 불만족인 편은 13.5%, 매우 불만족은 1.4%로 14.9%만이 불만족을 표시하였다.

현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별로는 40대가 65.1%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가 42.1%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는데 고졸이하는 48.1%, 대졸자는 48.0%, 대학원 학력자는 57.6%가 만족하고 있다.

2) 타지역으로의 이주의사

이어서 현재 살고있는 지역(시·군 단위)을 옮길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과반수인 57.9%가 옮기고 싶지 않다고 한 반면, 7.5%는 언젠가 반드시 옮기겠다, 34.6%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옮기겠다고 하여 42.1%가 현거주지역을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타지역으로의 이주의사는 전북지역 출신자 보다 타지역 출신자들에게서 강했는데 타지역 출신자의 20.0%가 반드시 옮기겠다,

40.0%가 기회가 주어지면 옮기겠다고 하여 60.0%가 옮길 의사를 갖고 있는 반면, 옮기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40.0%에 불과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북지역 출신자들은 60.7%가 옮기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직업별로는 사무직(78.1%)과 전문직 종사자들(70.5%)이 현거주지역을 옮기고 싶지 않다고 한데 반해 약 반수가 타지역 출신자들인 주부들은 61.5%가 현 거주지역을 옮길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한편 연령별로 보면 <표 2>와 같은데 연령이 낮을수록 옮길 의사가 강했는데 현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20대 연령층의 63.2%가 옮길 의사를 보였고, 30대는 48.0%, 40대는 25.6%, 50대 이상은 21.2%만이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별 타지역으로의 이주의사는 χ^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20.8$, $df=6$, $p<.01$).

<표 2> 연령별 타지역으로의 이주 의사 (%)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전 체
언젠가 반드시	15.8	7.0	4.7	3.0	7.5
기회가 주어지면	47.4	41.0	20.9	18.2	34.6
옮기고 싶지않다	36.8	52.0	74.4	78.8	57.9
계 (사례수)	100.0 (38)	100.0 (100)	100.0 (43)	100.0 (33)	100.0 (214)

$$\chi^2 = 20.8, \quad df=6, \quad p < .01$$

3) 이주 희망지역

현거주지역을 떠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과반수가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길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만약 자유로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면 어느 지역으로 옮기겠는가」라는 물음에 33.3%가 서울을, 20.5%가 수도권 지역을 거명하여 53.8%가 서울 등 수도권지역으로 옮기고 싶어하고 있다. 이밖에 다른 대도시는 19.2%, 다른 도의 군지역, 해외 등 기타가 5.1%인데 비해 전북내의 다른 시지역은 17.9%, 전북내의 군지역은 3.8%로 전북내에서의

계속 거주를 바라는 사람은 21.7%에 불과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연령층은 서울 등 수도권지역으로의 이주(20대 63.1%, 30대 61.4%) 희망자가 대부분이나 40대 이상 연령층은 전북내의 다른 시지역으로의 이주희망자(40대 50.0%, 50대 이상 42.9%)가 가장 많아 연령에 따라 이주 희망지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4) 타지역으로의 이주동기

현거주지역을 떠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주로 교육환경과 문화혜택의 부족 때문에 타지역으로 옮기고자 하고 있다. 현 거주지역을 떠나고 싶은 이유를 두가지씩 지적하라는 물음에 대해 자녀교육 등 교육환경의 부족이 30.6%로 가장 많고, 문화혜택 부족이 25.9%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서 교통문제(20.0%), 주변 환경문제(17.6%), 직장·사업문제(17.6%),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와 살고 있는 집이 좁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각각 15.3%), 거주지역의 낙후(12.9%), 거주주민들의 의식문제(7.1%), 타향 또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경제적 문제(각각 5.9%), 정보부족(4.7%) 순으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주로 문화혜택의 부족(41.7%) 때문에, 30대는 교육환경의 부족(37.0%)때문에, 40대 이상은 주변환경문제(40대 44.4%, 50대 이상 66.7%)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싶어하고 있다.

한편 이주희망지역별 이주동기를 보면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교육환경·시설의 부족(45.2%)과 문화혜택·시설부족(38.1%)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타시도로의 이주희망자들은 교통문제(38.9%)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전북지역내 이주희망자들은 집이 좁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52.9%로 가장 많고, 주변환경문제(47.1%)가 두번째로 많았다.

따라서 전북도내 지역으로의 이주동기는 교육환경, 문화환경 등의 이유 보다는 집의 공간문제 등과 관련된 조금은 단순한 동기라는 점에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이주 동기가 본질적으로 그 개선이 매우 어려운 교육·문화환경문제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지방민들도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정보화운동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 정보이용 실태와 만족도

응답자들에게 「해외정보」, 「국내정치·사회정보」, 「쇼핑·관광정보」, 「보건·의료정보」, 「시정 등 행정정보」, 「부동산·증권 등 경제정보」, 「문화·예술정보」, 「교육정보」, 「생활편의 정보」, 「우리고장 소식」, 「스포츠·영화·연예계 정보」 등 11개 정보에 대한 필요성과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들은 거의 모든 정보에 대한 개인적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나 현재 각종 정보매체로부터 받고 있는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각 정보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를 보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1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모두 높았는데 그 중에서 생활편의 정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94.8%로 가장 높고, 이어서 국내정치·사회정보가 93.0%, 교육정보가 89.2%, 보건의료정보가 84.7%, 우리고장 소식이 83.7%로 다른 정보들 보다도 이들 정보에 대해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밖에 시정 등 행정정보(74.4%), 해외정보(71.6%), 문화·예술정보(70.2%) 등도 비교적 많이 필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으며 부동산·증권 등 경제정보(61.5%), 쇼핑·관광정보(58.1%), 스포츠·영화·연예계 정보(50.2%) 등은 상대적으로 필요성 인식이 낮았다.

이러한 각 정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각 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해외정보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그 필요성 인식도가 높아져가는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20대 86.8%, 30대 72.3%, 40대 69.8%, 50대 이상 54.5%).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해외정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높았는데 고졸이하 학력자들은 필요하다는 인식(46.3%) 보다 필요없다(53.7%)는 인식이 더 높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학학력자는 71.6%, 대학원 학력자는 무려 94.9%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쇼핑·관광정보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들은 필요하다는 응답(45.1%) 보다 필요없다는 응답(54.9%)이 더 많았지만 여성들은 83.6%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주부들은 97.4%가 이러한 정보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성별로 보면 남성(81.7%) 보다는 여성(90.4%)이 강하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연령층(81.4%) 보다는 40대 이상 연령층(90.8%)에서 강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고졸이하 87.0%, 대학 86.3%, 대학원 79.7%) 강하고, 직업별로는 주부(94.9%)와 사무직 종사자들(90.6%)이 다른 사람들 보다 강했다.

시정 등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성 인식이 강했는데

20대 연령층은 71.1%, 30대는 69.3%, 40대는 81.4%, 50대 이상은 84.8%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 학력자들(81.4%)이 가장 강한 반면 대학원 학력자들(64.4%)에게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부동산·증권 등 경제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연령별로는 40대(73.8%)가 가장 높으며, 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필요성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100만원 미만 소득자들은 50.0%, 100-150만원대는 69.7%, 150만원 이상 소득자들은 72.9%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문화·예술정보는 남성(61.3%) 보다는 여성들(87.7%)이 필요성 인식도가 훨씬 강하며, 연령별로는 나이가 젊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는데 50대 이상은 54.5%, 40대는 67.4%, 30대는 72.3%인데 비해 20대는 81.6%이다. 직업별로는 주부들(87.2%)이 가장 강한 반면, 자영업·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필요없다(51.2%)는 사람이 더 많은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뚜렷한 경향을 보였는데 70만원 이하는 56.8%, 70-100만원대는 63.6%, 100-150만원대는 68.7%, 150만원 이상은 85.4%이다.

교육정보는 남성(86.6%) 보다는 여성(94.4%)이 강한데, 특히 주부들은 97.4%가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92.9%), 40대(95.3%)가 높은 반면 20대(81.6%)와 50대(78.8%)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강했는데 고졸이하는 81.5%, 대학학력자는 89.0%, 대학원 학력자는 96.6%이다.

우리고장 소식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40대 연령층(95.3%)이 가장 강한 반면 20대 연령층에서의 필요성 인식은 71.1%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스포츠·영화·연예계 정보는 남성들은 필요하다(47.2%)는 사람 보다 필요없다(52.8%)는 사람이 더 많지만, 여성들은 56.2%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필요성 인식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30대 연령층을 기준으로 30대 이하 연령층은 필요하다는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40대 연령층은 필요없다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영화·연예계 정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성과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정치·사회정보와 생활편의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표 3〉 각 정보의 필요성 인식과 만족도 (%)

	필요	불필요	만족	보통	불만족
해외정보	71.6	28.4	17.5	64.6	17.9
국내 정치·사회정보	93.0	7.0	28.8	42.0	29.2
쇼핑·관광정보	58.1	41.9	17.9	59.0	23.1
보건·의료정보	84.7	15.3	16.0	50.0	34.0
시정 등 행정정보	74.4	25.6	9.9	47.2	42.9
부동산, 증권 등 경제정보	61.5	38.5	15.3	65.6	19.1
문화·예술정보	70.2	29.8	20.6	56.9	22.5
교육정보	89.2	10.8	18.3	48.8	32.9
생활편의정보	94.8	5.2	13.6	50.7	35.7
우리고장 소식	83.7	16.3	12.3	60.7	27.0
스포츠, 영화, 연예계정보	50.2	49.8	28.7	62.2	9.1

이어서 현재 신문, 방송, 잡지 등 여러 정보수단을 통해 얻고 있는 11개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 정보 모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반면에 보통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족 보다는 불만족하다는 비율이 더 높은 점이 두드러진다. 불만족율을 기준으로 하여 불만도가 가장 높은 정보는 시정 등 행정정보로 42.9%가 불만족을, 47.2%가 보통이라 한데 비해 만족하다는 비율은 9.9%에 지나지 않는다. 이어서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생활편의 정보에 대한 불만족율이 35.7%(만족 13.6%, 보통 50.7%)로 두 번째로 불만도가 높았고, 보건·의료정보(불만족 34.0%, 만족 16.0%, 보통 50.0%), 교육정보(불만족 32.9%, 만족 18.3%, 보통 48.8%) 등에 대한 불만도도 높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응답자들의 필요성 인식도가 가장 낮은 스포츠·영화·연예계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28.7%에 불과하지만 불만족 비율(9.1%) 보다는 높아 11개 정보 중 유일하게 만족비율이 불만족비율 보다 높았다. 또한 국내정치·사회

정보(만족 28.8%, 불만족 29.2%, 보통 42.0%), 해외정보(만족 17.5%, 불만족 17.9%, 보통 64.6%), 문화예술 정보(만족 20.6%, 불만족 22.5%, 보통 56.9%) 등은 다른 정보들 보다 만족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불만족 비율과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밖에 쇼핑·관광정보는 만족 17.9%, 불만족 23.1%, 보통 59.0%이었고, 부동산·증권 등 경제정보는 만족 15.3%, 불만족 19.1%, 보통 65.6%이었으며, 우리고장 소식은 만족 12.3%, 불만족 27.0%, 보통 60.7%이었다.

지금까지 11개 각 정보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심한 정보갈증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복지역 유식자층의 정보갈증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요성 인식도와 만족도를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이들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정보에 대한 만족도만을 가지고서 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갈증 또는 정보빈곤증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만족스럽게 얻고 있는지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만이 개인의 정보갈증, 빈곤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11개 정보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를 크게 강, 중, 약으로 3분하여 필요성 비율이 85% 이상인 정보를 강한 필요성 정보(상)로, 70-85% 사이에 있는 정보를 중간정도로 필요한 정보(중), 70% 이하의 정보를 약한 강도의 필요정보(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11개 정보에 대한 만족도 역시 상, 중, 하로 3분하여 만족율이 불만족을 보다 높거나 거의 비슷한 정보들을 약한 불만정보(하), 불만족율이 30%를 상회하는 정보를 강한 불만정보(상)로 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중간 정도의 불만정보(중)로 분류하였다. 이와같이 11개 정보를 필요성 인식도와 불만도 강도의 크기에 따라 재분류하여 도식화시켜 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성 인식도가 높으나 불만도 역시 높은 정보(유목 1)들은 생활편의 정보·교육정보·보건·의료정보이다.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불만도가 낮은 정보(유목 3)는 국내정치·사회정보이다. 이에 비해 시정 등 행정정보는 상대적으로 중간정도로 필요하나 불만도가 매우 높고, 우리고장 소식은 필요성과 불만도가 모두 중간정도이다. 필요성은 중간정도이나 불만도가 낮은 정보(유목 6)는 문화·예술정보·해외정보이다. 그리고 필요성 인식은 다른 정보들 보다 낮지만 중간정도의 불만도를 보인 정보(유목 8)는 쇼핑·관광정보·부

동산·증권 등 경제정보이다. 마지막으로 필요성과 불만도가 모두 낮은 정보(유목 9)는 스포츠·영화·연예계 정보이다.

<표 4> 정보의 유형

		필요성 인식도		
		상	중	하
불만도	상	1 *생활편의 정보 *교육정보 *보건·의료정보	4 *시정 등 행정정보	7
	중	2	5 *우리고장 소식	8 *쇼핑·관광정보 *부동산·증권 등 경제정보
	하	3 *국내정치·사회정보	6 *문화·예술정보 *해외정보	9 *스포츠·영화· 연예계정보

(대중성 정보) (대중성 + 계층성 정보) (특정 계층성정보)

따라서 앞으로 생활정보 중심의 지역정보화는 편리한 생활을 위한 생활편의 정보, 교육정보, 보건·의료정보 등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의 현거주지역을 떠나려는 주된 이유로 교육문제, 문화혜택 부족, 교통문제 등이 많이 지적되었던 결과와 매우 일치하고 있다. 결국 전국의 지역정보화 운동 방향은 위 <표 4>에 제시한 9개 정보유형 중 유목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유목번호가 빠른 정보일수록 모든 계층이 갈망하고 있는 대중성 정보이며 유목번호가 낮은 정보일수록 대중성이 있는 정보라기 보다는 특정 계층이 갈망하고 있는 정보(예를 들어 유목 8의 쇼핑·관광정보는 주부층이, 부동산·증권 등 경제정보는 고소득층, 유목 9의 스포츠·영화·연예계정보는 젊

은 여성층이 갈망하는 정보)로 볼 수있겠다.

라. 정보화사회 인식도

본 조사 응답자들이 정보화사회와 관련된 정보통신매체, 서비스 등에 대한 지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화사회, 뉴미디어, 컴퓨터, 데이콤의 천리안 II, 지역정보화, 문자다중방송, 자연의 소리 등 전화(음성)정보서비스, 진안우체국 농어촌 컴퓨터교실 등 8개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들을 갖고 있으나 천리안 II와 진안우체국 농어촌 컴퓨터교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8개 항목중 컴퓨터에 대한 지식정도가 가장 높았는데 17.8%가 잘 알고 있다, 63.8%가 어느 정도 알고있다고 하여 81.6%가 컴퓨터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17.4%는 말은 들어 보았지만 잘 모른다, 0.9%는 처음 듣는 말이라고 응답 하였다.

이어서 상대적인 지식율이 높은 것은 정보화사회로 78.5%(잘 알고있다 12.1%, 어느정도 알고 있다 66.4%)가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19.6%는 말은 들어 보았지만 잘 모른다, 1.9%는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였다. 정보화사회에 대한 지식도는 여성 보다는 남성이, 나이가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별로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원 학력자들은 98.3%, 대학학력자는 84.1%가 최소한의 지식(어느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있다)을 갖고 있는데 반해 고졸 이하 학력자는 46.3%만이 어느정도 알고 있으며 과반수인 53.7%가 잘 모르고 있다.

전주지역에서도 90년 11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자연의 소리 등 전화(음성)정보 서비스에 대해서는 15.9%가 잘 알고있다, 50.9%가 어느정도 알고있다고 하여 66.8%가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27.1%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잘 모른다, 6.1%는 처음 듣는말이라고 하였다. 전화정보서비스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나이가 젊을수록 잘 알고 있었는데 20대는 81.1%, 30대는 72.0%, 40대는 62.8%, 50대 이상은 51.6%가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있다.

〈표 5〉 정보화사회에 대한 지식도 (%)

	잘알고 있다	어느정도 알고있다	말은 들어보았지만 잘모른다	처음 듣는 말이다	계(사례수)
정보화사회	12.1	66.4	19.6	1.9	100.0(214)
뉴미디어	9.0	50.0	36.3	4.7	100.0(212)
컴퓨터	17.8	63.8	17.4	0.9	100.0(213)
천리안II	4.7	24.5	37.7	33.0	100.0(212)
지역정보화	8.1	51.9	34.8	5.2	100.0(210)
문자다중방송	8.0	53.1	33.8	5.2	100.0(213)
자연의 소리 등 전화정보서비스	15.9	50.9	27.1	6.1	100.0(214)
진안우체국 농어촌 컴퓨터교실	2.3	12.2	19.7	65.7	100.0(213)

1990년부터 KBS, MBC가 방송을 개시한 문자다중방송(TELETEXT)에 대해서는 8.0%만이 잘 알고있다, 53.1%가 어느정도 알고있다, 33.8%가 말은 들어보았지만 잘 모른다, 5.2%가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여 61.1%가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다중방송에 대한 지식도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잘모르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게서 지식도가 낮았는데 58.6%가 잘 모르고 있다.

지역정보화에 대해서는 8.1%가 잘 알고있다, 51.9%가 어느정도 알고있다, 34.8%가 말은 들어보았지만 잘 모른다, 5.2%가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여 여기에 대한 지식도는 60.0%이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지식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의 반수에 못미치는 47.2%, 대학학력자는 60.6%, 대학원 학력자는 70.7%의 비율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지역정보화를 잘 모른다는 비율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특이한 결과라 하겠다.

뉴미디어에 대한 지식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9.0%가 잘 알고있다, 50.0%가 어느정도 알고있다고 하여 59.0%의 지식도를 보였다. 36.3%는 말은 들어보았지

만 잘 모른다. 1.9%는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였다. 뉴미디어에 대한 지식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낮았는데 남성들은 31.7%가 잘 모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들은 60.0%가 잘 모르고 있다. 연령별로도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뉴미디어에 대한 지식도가 낮았는데 특히 40대 연령층은 53.5%가 잘 모르고 있다. 직업별로는 주부들의 69.5%, 자영업·서비스업 종사자들의 58.2%가 잘 모르고 있다.

데이콤의 VIDEOTEX 서비스인 천리안 II에 대한 지식은 매우 낮았는데 4.7%만이 잘 알고있다. 24.5%가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하여 여기에 대한 지식도는 29.2%이다. 이에 비해 말은 들어 보았지만 잘 모른다가 37.7%이고, 3명 중 1명꼴인 33.0%가 처음 듣는다고 하였다. 천리안 II에 대한 지식도는 여성(11.3%) 보다는 남성(38.3%)이 높았는데 특히 여성중에서 주부들은 무려 94.8%가 잘 모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자일수록 지식도가 높았는데 대학원 학력자는 54.3%가 여기에 대해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있다.

진안우체국 놓어촌 컴퓨터교실에 대한 지식은 더욱 낮았는데 2.3%만이 잘 알고 있다. 12.2%가 어느정도 알고있다고 하여 불과 14.5%만이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19.7%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잘 모른다. 3명 중 2명꼴인 65.7%는 처음 듣는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의 90.1%, 고졸이하 학력자의 90.6%, 주부의 94.6%가 잘 모르고 있다.

이어서 이러한 8개 항목에 대한 지식정도를 하나의 지수로 산출⁴⁾ 하여 각 계층별 분석을 해 보았다.

먼저 성별로 보면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은 12.6, 여성은 11.1로 남성들의 정보화사회 지식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도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지식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30대가 12.8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고졸이하하는 9.5, 대학학력자는 12.0인데 비해 대학원 학력자는 14.5의 높은 지수를 나타냈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이 15.2로 가장 높은 반면 자영업·서비스업 종사자들이 9.7로 매우 낮았다. 소득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많을수록 지식지수가 높아져가는 경향을 보였으나 F-tsst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4) 이를 위해 8개 항목 각각 잘 알고 있다는 3점, 어느정도 알고있다는 2점, 말은 들어보았지만 잘 모른다는 1점, 처음 듣는 말이라는 0점으로 환산하여 정보화사회 지식지수를 산출했는데 이 지수는 최고 24점에서 최저 0점까지 분포하게 되는데, 전체 평균은 12.1이었다.

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6〉 각 계층별 정보화사회 지식지수 (평균)

<u>성별</u>		
남	----->	12.6
여	----->	11.1
		F=7.1, df=1/203, p=.01
<u>연령별</u>		
20대	----->	12.6
30대	----->	12.8
40대	----->	11.2
50대이상	----->	10.9
		F=3.1, df=3/201, p<.05
<u>교육수준별</u>		
고졸이하	----->	9.5
대학학력자	----->	12.0
		F=28.7, df=2/202,
p=.0000		
대학원학력자	----->	14.5
<u>직업별</u>		
전문직	----->	15.2
공무원, 교사	----->	12.9
자영업·서비스업	----->	9.7
사무직	----->	12.5
		F=10.8, df=5/198,
p=.0000		
주부	----->	10.8
기타	----->	12.0

이러한 정보화사회 지식지수에 대한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별 분석은 각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러한 요인들이 정보화사회 지식

도에 미치는 영향 또는 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 연령 등 5개 요인 중 어떤 요인에 의한 효과가 크고 작은지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변인들간의 상호영향관계를 통제된 상태에서 특정 변인과 정보화사회 지식지수간의 관계를 분석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 5개 변인외에 정보화사회 지식도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는 변인들인 컴퓨터사용 경험유무 및 사용빈도, 신문독서시간, TV시청시간, 가정에서의 신문구독부수, Cable-TV에 대한 지식도 등 5개 변인을 추가하여 모두 10개의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인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은데 정보화사회 지식도는 Cable-TV 지식도, 교육수준, 컴퓨터사용 경험 및 빈도, 가정의 신문구독부수, 자영업·서비스업 여부 등 5개 변인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들 5개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38.2%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과는 한 개인의 Cable-TV에 대한 지식도와 교육수준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정보화사회 지식수준을 설명 또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 변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7> 정보화사회 지식지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다변인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MR	R ²	R ² Change	β	F
Cable-TV지식도	.438	.192	.192	.438	43.2 *
교육수준	.552	.305	.113	.345	39.7 *
컴퓨터 사용경험, 빈도	.584	.341	.036	.225	31.1 *
가정의 신문구독부수	.604	.365	.024	.156	25.7 *
자영업, 서비스업 여부	.618	.382	.017	-.138	21.9 *

* p = .0000

따라서 앞의 계층별 개별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결국은 교육수준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그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자영업·서비스업 종사 여부에 의해서도 정보화사회 지식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마. 지역정보화에 대한 의견 및 전망

1) 지역정보화의 방향

앞의 <표 5>에서 본바와 같이 본 조사 응답자들의 60.0%가 지역정보화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지역정보화에 대한 지식은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응답자들은 앞으로 지역정보화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를 개발하고 유통시키는 일에 중점을 둔과 동시에 정보의 중앙집중 방지와 지방분산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들에게 11개 항목을 제시하고서 앞으로 지역정보화 운동이 초점을 두어야 할 측면을 두개씩 고르라는 물음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의 개발, 유통(41.1%)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이어서 정보의 중앙집중방지와 지방분산화(32.7%)를 두번째로 많이 거론하였다. 이어서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의 손쉽고 편리한 이용이 26.2%로 세번째,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23.8%로 네번째로 많이 지적되었다. 이밖에 지역의 우수인력 확보 및 양성(17.8%),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제공(16.8%), 정보통신기기 이용료의 저렴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똑같이 14.0%), 정보통신기기 가격의 저렴화(9.8%)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적되었고, 1.4%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표 8 참조>).

이와 같이 응답자들이 특정 항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보다는 여러 측면에 걸쳐 고르게 지적했다는 사실을 통해 응답자들은 지역정보화의 방향에 대해 비교적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위에서 열거한 11개 항목 모두가 거의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응답자들은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정보의 중앙집중을 막고 지방분산화를 피하고 아울러 각 지역은 그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를 개발하고 유통시키는 일을 지역정보화의 중요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정보화의 방향에 대한 의견은 연령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대 연령층은 정보의 중앙집중방지와 지방분산화(42.1%)에 가장 많은 초점을 둘 것을 바라고 있으며, 30대는 정보의 중앙집중방지, 지방분산화를 피함과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의 개발, 유통(똑같이 33.0%)에 힘쓸 것을 바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40대 이상 연령층은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의 개발, 유통(40대 58.1%, 50대 이상 57.6%)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표 8>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연령이 낮을수록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의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는 현상인데 20대 연령층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율은 23.7%이다.

<표 8> 연령별 지역정보화의 방향 (%)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전 체
정보의 중앙집중 방지, 지방분산화	42.1	33.0	20.9	36.4	32.7
정보통신기기 가격의 저렴화	15.8	9.0	9.3	6.1	9.8
정보통신기기 이용료의 저렴화	13.2	16.0	11.6	12.1	14.0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의 개발, 유통	28.9	33.0	58.1	57.6	41.1
정보통신기기의 손쉽고 편리한이용	26.3	26.0	30.2	21.2	26.2
다양한 정보의 제공	26.3	23.0	25.6	21.2	23.8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의 제공	23.7	19.0	14.0	6.1	16.8
지역의 우수인력 확보, 양성	18.4	15.0	20.9	21.2	17.8
지역경제 활성화	5.3	19.0	7.0	18.2	14.0
잘 모르겠다		3.0			1.4
사 례 수	38	100	43	33	214

2) 지역정보화운동 주도체

응답자들은 현재의 여러 여건으로 보아 전라북도의 지역정보화 운동은 한국통신이 중심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바람직한 전북의 지역정보화운동 주도체에 대해 응답자들은 한국통신(35.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민간기업(20.2%)을 두번째로 많이 꼽았다. 이밖에 도청·시·군청은 9.4%·데이콤이 8.0%, 우체국과 지역상공회의소가 각각 3.3%, 농협이 1.4%, 기타가 1.9%이며, 16.9%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응답자들은 지역정보화 운동이 우체국이나 도청·시청·군청 등 국가기관의 주도 보다는 공사나 민간기업이 주도할 것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현실적으로 조직망이 가장 우세한 우체국을 단

위지역정보화 운동 중심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에 대한 지적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국가기관의 개입을 바라지 않는 심리와 우체국에 대한 고정화된 이미지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정보화 운동 중심체에 대한 의견은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에 따라 별 차이없이 한국통신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3) 지역정보화 운동의 효과에 대한 전망과 이유

지역정보화 운동의 효과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으나 긍정적 전망이 약간 우세한 편이다. 지역정보화란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각 지역간의 균등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응답자들에게 이러한 지역정보화 운동이 추진된다면 정말로 중앙과 지방간의 차이없이 모든 지역이 균등발전할 것으로 전망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결과 1.4%는 반드시 그럴 것이다, 48.4%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49.8%가 낙관적으로 전망하였으나 39.1%가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다, 4.7%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없다고 하여 43.8%가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으며 6.5%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역정보화의 효과 전망은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20대 연령층은 긍정적 전망(36.8%) 보다 부정적 전망(57.9%)이 우세하나 나머지 연령층은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였는데, 특히 40대 연령층에서 긍정적 전망은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 교육수준, 직업별에 따라서는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역정보화에 대한 지식수준에 따라 지역정보화의 효과전망이 달랐는데 지역정보화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전망(58.5%)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역정보화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전망(56.2%)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 결과이다.

그러면 지역정보화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또는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근거들을 보면 정보가 각 지역으로 분산되고 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45.5%로 가장 많다. 이어서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줄어들 것이기에가 31.2%로 두번째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할 것이기에가 9.1%,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거나 계발될 것이기에가 5.2%, 지역경제

가 활성화될 것이기에가 3.9%, 그리고 5.2%는 뚜렷한 이유없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표 9 참조).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유는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40대 이하 연령층은 정보의 지방분산과 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지만 50대 이상은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비관적 전망이유를 보면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정보의 불균형문제만의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불평등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정보화운동만으로는 지역간 균등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36.4%로 가장 많다. 이어서 서울과 지방간의 발전격차가 너무 크거나 계속될 것이라는 이유가 26.0%로 두번째로 많다. 이밖에 지역경제 낙후가 11.7%, 지역정보화 운동은 운영상의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기에가 9.1%, 정보의 서울집중이 계속될 것이기에가 역시 9.1%, 지역민들의 의식부족이 5.2%, 인재부족이 2.6%이었다.

〈표 9〉 지역정보화의 효과 전망 근거 (%)

긍정적 전망 이유		부정적 전망 이유	
1. 정보의 지방분산화 파급효과	45.5	1.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불평등 때문에	36.4
2. 지역간 발전격차가 줄어들므로	31.2	2. 지역간 불평등이 너무 크고 계속될 것이기에	26.0
3. 많은 사람들이 노력할 것이기에	9.1	3.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11.7
4. 지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거나 계발될 것이기에	5.2	4. 지역정보화 운동의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9.1
	5.2	정보의 서울 집중이 계속될 것이기에	9.1
6.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기에	3.9	6. 지역민들의 의식부족	5.2
		7. 인재부족	2.6
계 (사례수)	100.0 (77)	계 (사례수)	100.0 (77)

이러한 비관적 전망이유는 성별에 따라 달랐는데 남성들은 정치·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불평등 문제이기 때문(45.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여성들은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너무 크거나 계속될 것이기 때문(33.3%)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

다. 또한 연령별로도 20대는 대부분이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너무 크거나 계속될 것이기 때문(65.0%)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30대 이상 연령층은 정치·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불평등 이유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4. 맺는말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역격차문제는 60년대의 사회변동과정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의 사회변동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변동이었다. 고도성장 최우선정책에 따라 경제적 성장은 이룩하였으나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야기하였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전략과 공업우선의 불균형 성장전략에서 비롯되었다. 즉 효율성, 생산성이라는 발전 기치 아래 균형적인 개발정책이 아닌 특정 공업단지에 치중한 정책으로 지역간 발전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런 과정속에서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부산 중심의 동남해안 지역은 기간산업의 중심지로 등장하게 되었고 입지조건이 불리하였던 호남, 충청지역은 소외되었다. 성장거점 방식의 개발전략은 집적효과를 가져와 한 국가의 GNP는 상승할지 모르나 성장거점지역의 성장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기 보다는 주변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이 개발지역에 집중되는 역효과가 일어나 주변지역은 낙후하게 된다. 성장거점 지역은 교통, 주택, 환경문제와 도시문화의 병리현상 등 과대집적에 의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며, 전국적 차원에서는 국토이용의 양극화 현상을 낳아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심화시켰다.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정보화사회에서의 지역사회발전은 효율성(Efficiency) 보다는 형평성(Equity)의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 지역적 형평성은 국민이 어느 곳에서 살거나 동일한 가치의 복지수준을 향유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이 어떠한 지역공간에 존재하는가에 관계없이 균등한 자원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나타난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의 방향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어떤 지역에 거주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저렴한 가격으로 정보기기를 구입할 수 있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사용자가 사용방법을 쉽게 터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의 지방화는 시장원리에만 의존하도록 방치한다면 정보화에 의한 심한 격차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정보화정책은 공급자의 이익 차원에서 보다는 공공성, 형평성에 입각한 사용자 중심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뉴미디어를 비롯한 정보통신시설, 기기 보급의 균등화 뿐만 아니라 이용의 균등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는 정보통신을 사회하부구조의 일부로 간주하여 전국적 보급에 앞장서야 하는데 특히 낙후된 지역에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민과 낙후된 농촌지역민들의 정보통신 이용료를 차등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③ 정보통신을 이용한 지역정보화 정책은 각 지역단체의 계획을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총체적 계획, 조정을 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지역정보화 정책을 각 지역에만 맡길 경우 지역간의 균형성장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정보의 중앙집중 방지와 지방으로의 분산화를 이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상향식-하향식을 혼합한 절충식의 정책 수립방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④ 다수의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빠르면 우리 지역에도 1994년부터 들어오게 될 Cable-TV의 경우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Access채널을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얼마전 국회 문공위에서 통과된 종합유선방송법안에는 공중용 Access채널의 확보는 의무화하지 않고 행정용 Access채널만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

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지역민을 상대로 하여 정보화사회와 지역정보화, 컴퓨터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전북지역과 같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민에게 지역정보화, 컴퓨터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얻게될 이점을 이해시켜 정보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역에 적합하고 필요한 정보를 생산,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워드프로세서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정보화의 중요하고도 기본이요 동시에 무한한 정보의 창출과 활용을 가능케 하는 컴퓨터의 기능과 용도를 대폭적으로 확대시켜 주지 않는다면 컴퓨터의 대중보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을 기

반으로 하는 ISDN과 같은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Teletext, Videotex나 쌍방향 Cable-TV 등의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⑦ 각 지역 마다 그 지역 출신의 전문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정보화사회에서의 사회발전은 토지, 노동력, 자본 등의 생산요소 보다는 지식, 정보에 의해 주도된다. 특정 지역의 발전은 지식과 정보를 다루고 이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방의 산학이 연대하여 전문교육 또는 재교육을 확대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지방대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⑧ 지역정보화는 우선적으로 기업의 정보화, 나아가 개인생활의 정보화, 공공생활의 정보화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정보화는 대기업의 경우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투자비용을 감안한다면 단독으로 이룩하기가 어렵다. 특히 우리 전북지역과 같이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은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업의 정보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⑨ 본 연구결과에서 전북 지역민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주된 동기가 더 좋은 교육과 문화환경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현재 전북지역민들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정보가 바로 생활편의정보와 교육정보라는 결과를 기초한다면 지역정보화의 한 측면인 개인 생활의 정보화는 이들 정보의 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신문과 방송은 이러한 정보들의 제공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등장하게 될 Cable-TV의 경우 이들 정보는 기본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Basic채널을 통해 제공토록 하며 특정 계층이 집중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영화, 스포츠, 관광, 쇼핑정보, 그리고 경제정보 등은 채널당 또는 프로그램 당 추가 이용료를 부담해야만이 이용할 수 있는 Premium채널을 통해 전달토록 하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⑩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적어도 지역정보화가 착근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주도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간섭을 꺼리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자면 가능한한 정부의 전면적인 주도 보다는 한국통신 등의 공중통신사업자나 현재 각 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지역정보화협의회를 통해 지역정보화를 추진토록 하며 정부는 감독자,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겠다.